

|      |        |     |       |       |        |   |   |     |     |        |     |        |     |    |
|------|--------|-----|-------|-------|--------|---|---|-----|-----|--------|-----|--------|-----|----|
| 2004 | 47,378 | 282 | 92    | 763   | 24,491 | 3 | 2 | 95  | 107 | 11,968 | 154 | 9,196  | 158 | 67 |
| 2005 | 49,566 | 290 | 177   | 794   | 25,412 | 3 | 1 | 102 | 123 | 12,520 | 146 | 9,765  | 187 | 46 |
| 2006 | 51,286 | 295 | 363   | 850   | 26,078 | 3 | 1 | 107 | 134 | 12,808 | 142 | 10,294 | 172 | 39 |
| 2007 | 52,914 | 302 | 593   | 945   | 26,265 | 3 | 1 | 107 | 151 | 13,280 | 138 | 10,895 | 182 | 52 |
| 2008 | 54,165 | 313 | 690   | 1,064 | 26,581 | 3 | 1 | 118 | 184 | 13,618 | 139 | 11,248 | 175 | 31 |
| 2009 | 55,769 | 312 | 762   | 1,129 | 27,104 | 3 | 1 | 130 | 178 | 14,071 | 151 | 11,705 | 185 | 38 |
| 2010 | 56,244 | 312 | 849   | 1,154 | 27,334 | 3 | 1 | 143 | 188 | 14,074 | 159 | 11,804 | 186 | 37 |
| 2011 | 58,496 | 319 | 975   | 1,245 | 27,909 | 3 | 1 | 144 | 199 | 15,002 | 178 | 12,305 | 180 | 36 |
| 2012 | 59,519 | 323 | 1,087 | 1,327 | 28,762 | 3 | 1 | 156 | 202 | 14,800 | 199 | 12,440 | 184 | 35 |

## 4. 교육

### 1) 교육기회

#### (1) 각급 학교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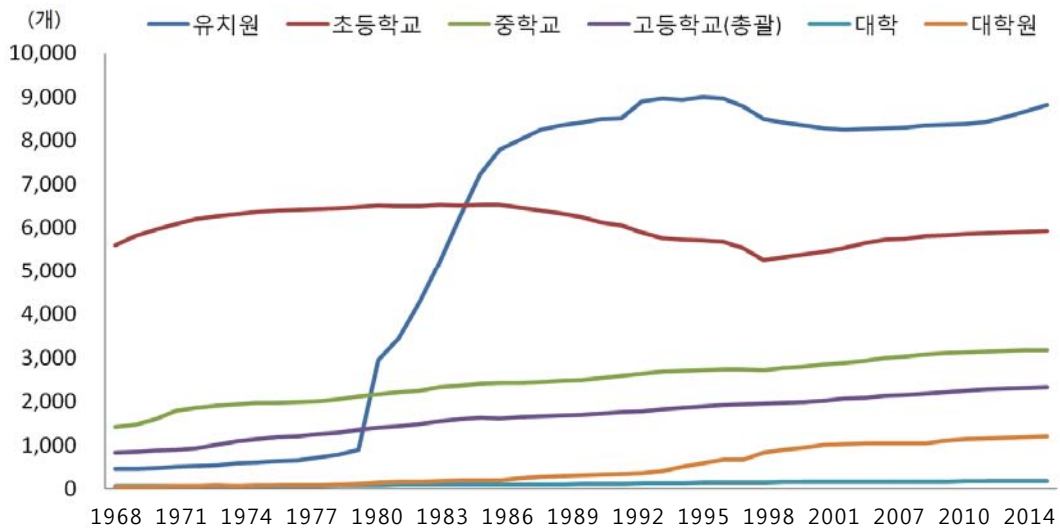
한국에서 교육은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국가적 투자이자 가구 단위에서도 후세를 위한 투자로 여겨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한국에서 각급 학교의 수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유치원 수로 1980년까지 완만하게 전국적으로 1,000개 이내로 증가세를 보이던 유치원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서 1980년대 중반 5,000개를 넘고, 1990년대에는 8,000개를 넘게 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중산층의 확대와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증가를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수는 1970년대까지 증가세를 지속하지만 1986년 6,535개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감소는 1980년대 이후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유치원의 수(8,826)가 가장 많고, 다음이 초등학교(5,934), 중학교(3,186), 고등학교(2,326), 대학교(189) 및 대학원(1,209)의 순으로 학교의 수가 많다.

### 각급 학교별 수(1968-2014)



### Ⅰ 각급 학교별 수(1952-2014)

(단위: 개)

|              | 1952  | 1955  | 1960  | 1961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4  |
|--------------|-------|-------|-------|-------|-------|-------|-------|-------|-------|-------|-------|-------|-------|-------|-------|
| 유치원          | —     | 173   | —     | 325   | 423   | 484   | 611   | 901   | 6,242 | 8,354 | 8,960 | 8,494 | 8,275 | 8,388 | 8,826 |
| 초등학교         | 3,938 | 4,220 | 4,640 | 5,264 | 5,125 | 5,961 | 6,367 | 6,487 | 6,519 | 6,335 | 5,772 | 5,267 | 5,646 | 5,854 | 5,934 |
| 중학교          | 607   | 949   | 1,053 | 1,073 | 1,208 | 1,608 | 1,967 | 2,121 | 2,371 | 2,474 | 2,683 | 2,731 | 2,935 | 3,130 | 3,186 |
| 고등학교<br>(총괄) | 340   | 557   | 640   | 647   | 701   | 889   | 1,152 | 1,355 | 1,602 | 1,683 | 1,830 | 1,957 | 2,095 | 2,253 | 2,326 |
| 대학           | 42    | 45    | 52    | 56    | 70    | 71    | 72    | 85    | 100   | 107   | 131   | 161   | 173   | 179   | 189   |
| 대학원          | —     | —     | —     | —     | 37    | 64    | 82    | 121   | 201   | 298   | 421   | 829   | 1,051 | 1,138 | 1,209 |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1961년 초등학교 수는 분교를 포함하고 있음.

## (2) 각급 학교별 학생수

각급 학교별 학생 수의 추이는 학교별 해당 연령의 인구와 더불어 진학의사와 정부의 정원 조정에 영향을 받는다. 전반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학의 경우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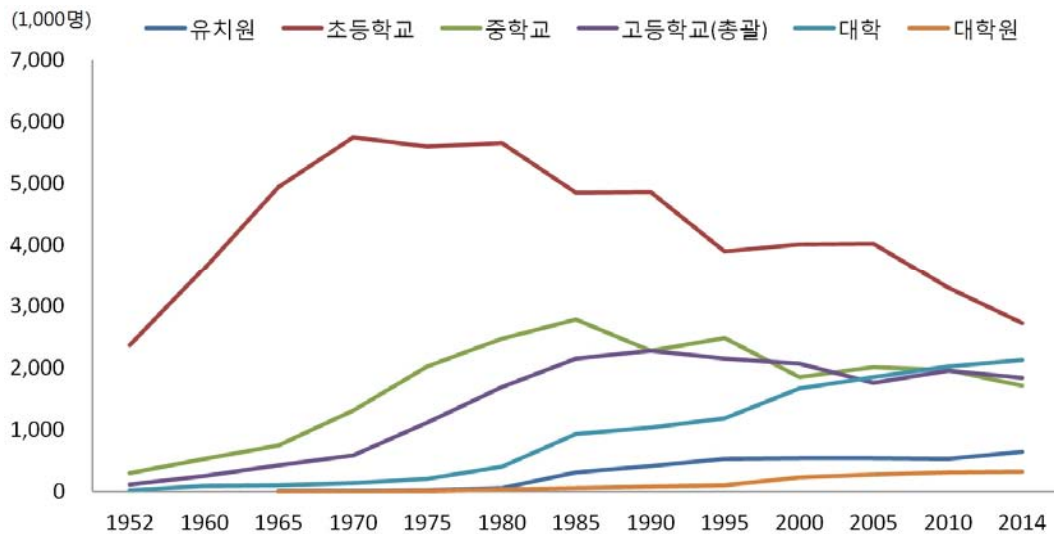
초등학생 수는 광복 당시부터 이미 의무교육이 시행되어 인구의 변화가 학생 수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초등학생 수는 1952년 237만이었던 학생 수가 1970년 575만 명을 정점으로 2.5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이것은 베이비 붐 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초등학생 수의 증가는 둔화되었고 1980년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현재에는 273만 명이다.

중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생 수에 비해 일정한 시간적 지체를 두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1952년 30만이었던 학생 수가 1965년 75만, 1970년 132만, 1980년 247만으로 빠르게 증가한 뒤 1985년 278만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2014년 현재 172만 명이다.

고등학생 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952년 12만 명에서 1965년 43만 명, 1975년 112만 명으로 늘었고, 1983년 200만 명을 넘었으며, 1989년 23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4년 현재 184만 명의 고등학생이 있다.

대학생의 경우는 앞에서 본 것과 달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 즉 대학설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1990년대 후반의 정책의 영향이다. 대학생 수는 1952년 3만 명으로 매우 적지만 1965년 10만을 넘어섰고, 1975년 20만, 1980년 40만, 1985년 93만, 2000년 167만, 2010년 203만, 그리고 2014년 213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인 시기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각급 학교별 학생수(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Ⅰ 각급 학교별 학생수(1952-2014)

(단위: 천명)

|              | 구분        | 1952  | 1960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4  |
|--------------|-----------|-------|-------|-------|-------|-------|-------|-------|-------|-------|-------|-------|-------|-------|
| 유치원          | 학생수       | —     | —     | 20    | 22    | 32    | 66    | 315   | 415   | 529   | 545   | 542   | 539   | 653   |
| 초등학교         | 학생수       | 2,370 | 3,621 | 4,941 | 5,749 | 5,599 | 5,658 | 4,857 | 4,869 | 3,905 | 4,020 | 4,023 | 3,299 | 2,729 |
| 중학교          | 학생수       | 303   | 529   | 751   | 1,319 | 2,027 | 2,472 | 2,782 | 2,276 | 2,482 | 1,861 | 2,011 | 1,975 | 1,718 |
| 고등학교<br>(총괄) | 학생수       | 123   | 264   | 427   | 590   | 1,123 | 1,697 | 2,153 | 2,284 | 2,158 | 2,071 | 1,763 | 1,962 | 1,839 |
| 대학           | 재적<br>학생수 | 32    | 93    | 106   | 146   | 209   | 403   | 932   | 1,040 | 1,188 | 1,665 | 1,860 | 2,029 | 2,130 |
| 대학원          | 재적<br>학생수 | —     | —     | 4     | 7     | 14    | 34    | 68    | 87    | 113   | 229   | 282   | 317   | 331   |

### (3) 각급 학교별 졸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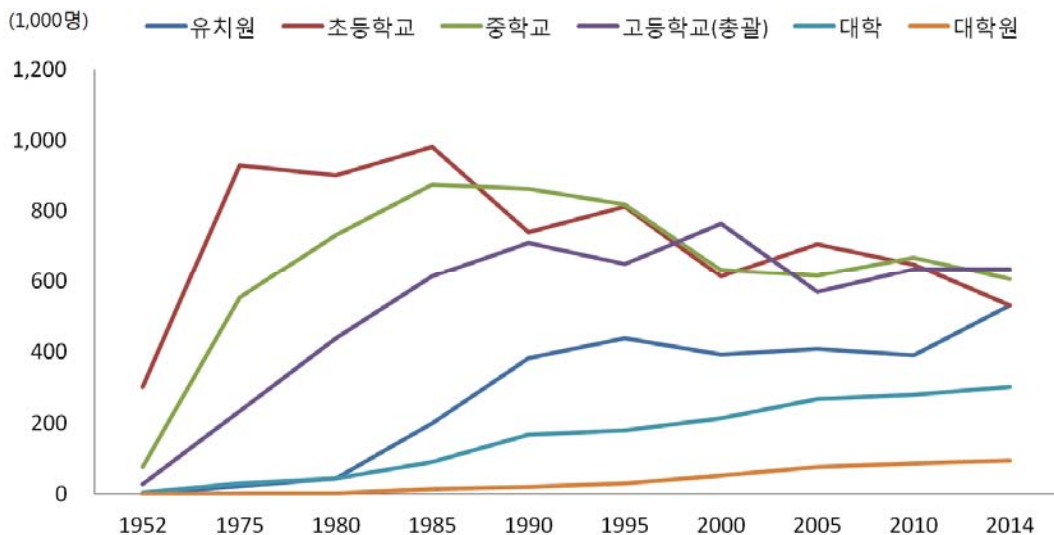
각급 학교별 졸업자 수의 변화는 각급 학교별 학생 수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졸업자 수가 2차 베이비 붐 세대까지 비슷한 수

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졸업자 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가 졸업하는 시기부터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졸업하는 1985년까지 80~90만 명에 가까운 졸업자들이 매년 배출되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1980년 73만에서 1985년 87만까지 늘어난 후 1995년 82만 명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그보다 시간 지체를 두고 1990년 71만 명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2000년에 77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대학교 졸업자의 수는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4만 5,000명에서 16만 7,000명으로 급증한 뒤 2000년 21만 명, 2010년 30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베이비 붐 세대 인구의 급증 이후 인구변화가 졸업자 수의 변화에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가 거처간 뒤에도 증가가 계속되는 것은 경제수준 향상과 교육투자 증가에 따른 진학률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별 졸업자수(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 Ⅰ 각급 학교별 졸업자수(1952-2014)

(단위: 천명)

|          | 1952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4 |
|----------|------|------|------|------|------|------|------|------|------|------|
| 유치원      | —    | 24   | 46   | 200  | 384  | 440  | 392  | 409  | 390  | 532  |
| 초등학교     | 303  | 930  | 902  | 982  | 740  | 813  | 615  | 707  | 648  | 531  |
| 중학교      | 76   | 554  | 732  | 875  | 863  | 819  | 631  | 616  | 669  | 606  |
| 고등학교(총괄) | 28   | 235  | 440  | 614  | 710  | 650  | 765  | 569  | 634  | 633  |
| 대학       | 4    | 30   | 45   | 91   | 167  | 181  | 214  | 269  | 280  | 302  |
| 대학원      | —    | 3    | 4    | 16   | 21   | 32   | 53   | 77   | 88   | 96   |

### (4) 각급 학교별 남녀 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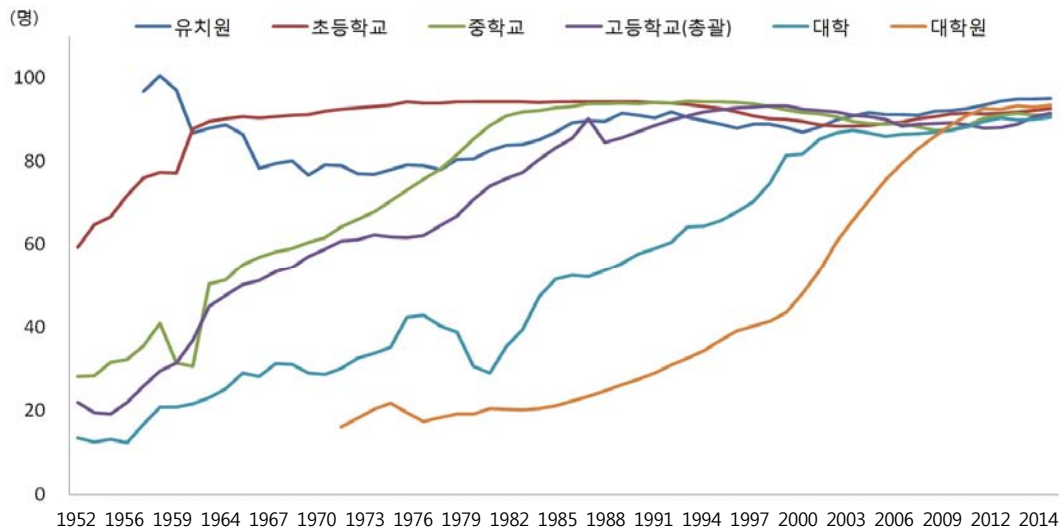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의 의식이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가족 단위에서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딸보다 아들에 더 많은 교육투자를 하는 경향이 더 강화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남녀비율이 196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우 판이하게 다르다. 1952년 당시 중학교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28%, 고등학생의 경우 22%, 대학교의 경우 14%에 불과했다. 중학교 이상에서는 남성이 지배적이었고 학급이 올라갈수록 그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남녀 학생 비율의 격차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1971년에는 중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의 64%로, 고등학교의 경우 61%로 높아졌으며, 1980년에는 각각 89%와 74%, 1990년에는 각각 94%와 89%로 증가했다. 대학교에서의 남녀 학생의 비율은 이보다 느리게 변화하여 1971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30%, 1980년에 29%, 1990년에 59%, 2000년에 85.4%, 그리고 2014년에 90.6%에 이르기까지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해 왔다.

이처럼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져온 배경에는 경제수준 향상에 대한 교육투자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및 의식변화에 따른 남녀 차별의 감소 등이 있다.

## 각급 학교별 남녀 학생 비율(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성비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를 의미함.

3) 대학생의 경우 총 재적인원이 아닌 재학생에 대한 남녀 학생 비율임.

## Ⅰ 각급 학교별 남녀 학생 비율(1952-2014)

(단위: 남학생 백명당 여학생 명)

|              | 1952 | 1957 | 1966 | 1971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4 |
|--------------|------|------|------|------|------|------|------|------|------|------|------|------|------|
| 유치원          | —    | 96.8 | 78.3 | 79.1 | 79.1 | 82.5 | 89.2 | 90.4 | 88.0 | 88.2 | 91.2 | 93.6 | 95.1 |
| 초등학교         | 59.4 | 76.0 | 90.4 | 92.5 | 94.3 | 94.3 | 94.3 | 94.2 | 91.8 | 88.8 | 89.5 | 91.4 | 92.7 |
| 중학교          | 28.2 | 35.5 | 56.9 | 64.2 | 73.1 | 88.6 | 93.2 | 94.1 | 94.2 | 91.4 | 89.0 | 90.4 | 91.2 |
| 고등학교<br>(총괄) | 22.0 | 26.0 | 51.3 | 60.8 | 61.7 | 74.1 | 85.5 | 88.6 | 92.8 | 92.1 | 88.5 | 88.0 | 91.5 |
| 대학           | 13.5 | 16.7 | 28.3 | 30.2 | 42.4 | 29.0 | 52.6 | 59.1 | 67.9 | 85.4 | 86.5 | 89.6 | 90.6 |
| 대학원          | —    | —    | —    | 16.1 | 19.7 | 20.6 | 22.3 | 29.0 | 39.1 | 53.6 | 79.4 | 92.8 | 93.5 |

## 2) 교육의 조건과 과정

### (1) 학급별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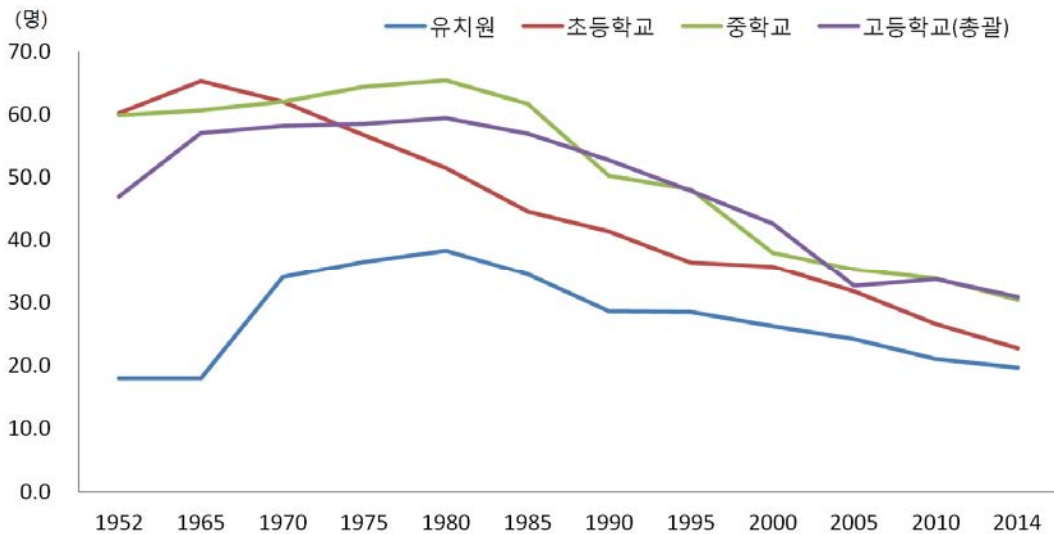
학급별 학생수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적으로 개발 과정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충분치 못했던 당시에는 많은 학령 인구들을 수용하느라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높아서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경제수준의 향상 및 학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빠르게 개선되었다.

가장 빠른 개선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취학연령의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952년 60명에서 1965년 65명까지 높아지지만 이후 1975년 57명, 1985년 45명, 1995년 36명, 2005년 32명, 2014년 23명에 오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 현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65년의 35%에 불과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감소가 시작된 시점과 감소의 속도가 늦기는 하지만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80년 66명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를 지속해서 2014년 현재는 31명으로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52년 47명에서 1980년 60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를 거듭해서 2014년에는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31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급별 학생수(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대학과 대학원생은 도표에서 제외됨.

3) 도표에서 유치원의 경우 1952년 수치가 없어 1965년 수치를 입력한 것임.

학급별 학생수(1952-201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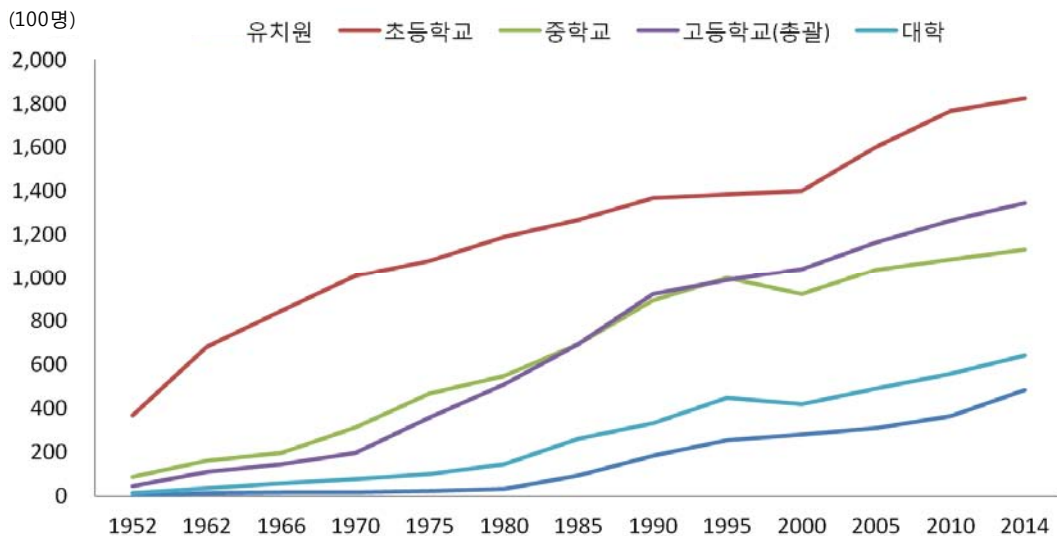
|              | 1952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4  |
|--------------|-------|-------|-------|-------|-------|-------|-------|-------|-------|-------|-------|-------|
| 유치원          | —     | 18.0  | 34.1  | 36.6  | 38.4  | 34.5  | 28.6  | 28.5  | 26.3  | 24.2  | 21.0  | 19.7  |
| 초등학교         | 60.2  | 65.4  | 62.1  | 56.7  | 51.5  | 44.7  | 41.4  | 36.4  | 35.8  | 31.8  | 26.6  | 22.8  |
| 중학교          | 60.0  | 60.7  | 62.1  | 64.5  | 65.5  | 61.7  | 50.2  | 48.2  | 38.0  | 35.3  | 33.8  | 30.5  |
| 고등학교<br>(총괄) | 47.0  | 57.1  | 58.2  | 58.6  | 59.5  | 56.9  | 52.8  | 47.9  | 42.7  | 32.7  | 33.7  | 30.9  |
| 대학           | 116.9 | 119.2 | 130.7 | 146.5 | 156.5 | 298.1 | 259.5 | 240.9 | 177.6 | 182.5 | 186.7 | 193.3 |
| 대학원          | —     | 7.0   | 8.2   | 7.2   | 19.3  | 23.2  | 29.0  | 26.7  | 31.3  | 31.2  | 31.3  | 31.5  |

## (2) 각급 학교별 교원수

학교별 교원 수는 각급별 학교마다 거의 동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도 감소하고 학교 수도 감소했으나 교원의 수는 증가를 계속해 왔다.

1952년 3만 6,000명이던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70년 10만 명을 넘고, 2000년 14만 명을 넘어 2014년 현재 18만 명을 넘는다. 중학교 역시 1952년 9천명에서 1970년 3만 명을 넘고, 1980년 5만 명, 1990년 10만 명을 거쳐 2014년 현재 11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1952년 5,000명에서 1970년 2만 명, 1980년 5만 명, 1990년 9만 명, 2000년 10만 명을 거쳐 2014년 현재 13만 명이다. 대학교 교수의 경우 1952년 1,000명이 겨우 넘었는데 1975년 1만 명, 대학 정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1985년 2만 6,000명, 1995년 4만 5,000명, 2005년 4만 9,000명을 거쳐 2014년 현재 6만 4,000명에 이른다.

각급 학교별 교원수(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주: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1998년 이전에는 대학교 교원 수에 조교가 포함됨.  
3) 대학원 교원수는 도표에서 제외됨.

## Ⅰ 각급 학교별 교원수(1952-2014)

(단위: 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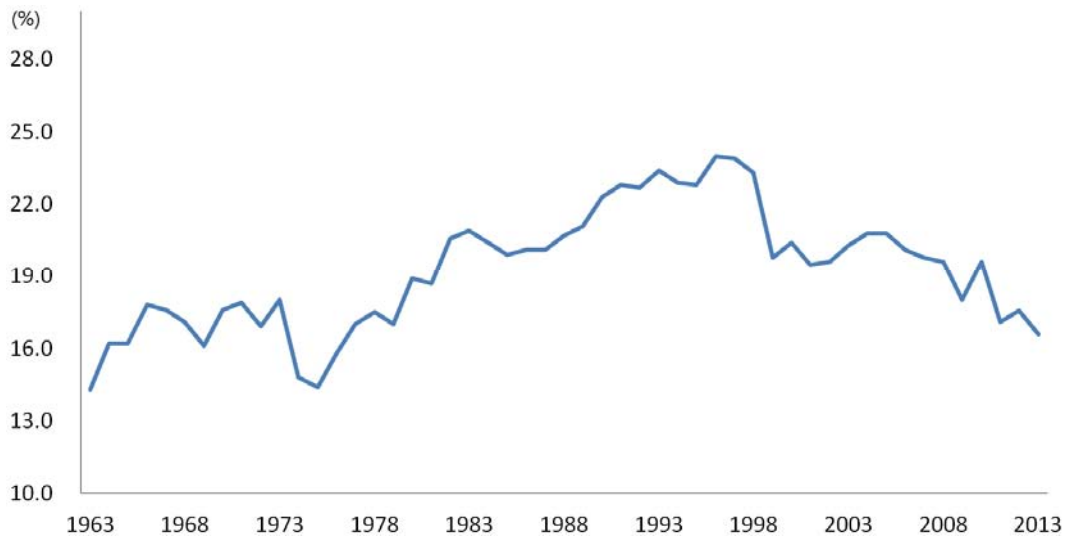
|      | 1952 | 1962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4  |
|------|------|------|------|-------|-------|-------|-------|-------|-------|-------|-------|-------|-------|
| 유치원  | —    | 11   | 16   | 17    | 22    | 33    | 93    | 185   | 256   | 280   | 310   | 365   | 485   |
| 초등학교 | 367  | 681  | 849  | 1,011 | 1,081 | 1,191 | 1,268 | 1,368 | 1,384 | 1,400 | 1,601 | 1,768 | 1,827 |
| 중학교  | 88   | 162  | 198  | 312   | 469   | 549   | 696   | 897   | 999   | 926   | 1,038 | 1,088 | 1,133 |
| 고등학교 | 46   | 111  | 146  | 199   | 358   | 509   | 695   | 927   | 991   | 1,044 | 1,164 | 1,264 | 1,345 |
| (총괄) |      |      |      |       |       |       |       |       |       |       |       |       |       |
| 대학   | 12   | 34   | 58   | 78    | 101   | 145   | 260   | 333   | 451   | 419   | 492   | 560   | 644   |
| 대학원  | —    | 4    | 3    | 2     | 2     | 2     | 4     | —     | —     | —     | 17    | 57    | 77    |

### (3) 교육비 예산

공교육비는 교육 영역에서 투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 및 민간 수준의 책무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공교육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동시에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국민통합을 증진하고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을 양성하여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는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계속 유지했다. 1963년 14.3%였던 교육예산의 정부예산 비율은 1990년대 22%를 넘는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20%대를 그리고 2013년은 17%의 수준이다. 정부 예산에서 교육예산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시기는 1970년대로 1975년 14.4%에서 1983년 21%까지 높아졌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1963-2013)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주: 1) (~2004) 정부예산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2005~) 정부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5) 2013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준이며,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됨.

##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1963-2013)

(단위: 천원; %)

|       | 1963           | 1965           | 1970           | 1975            | 1980            | 1985            |
|-------|----------------|----------------|----------------|-----------------|-----------------|-----------------|
| 정부예산  | 76,322,551     | 94,652,348     | 446,273,301    | 1,586,931,050   | 5,804,061,441   | 12,532,361,835  |
| 교육부예산 | 10,916,095     | 15,331,155     | 78,478,212     | 227,925,711     | 1,099,159,170   | 2,492,308,215   |
| 비율    | 14.3           | 16.2           | 17.6           | 14.4            | 18.9            | 19.9            |
|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3            |
| 정부예산  | 22,689,432,968 | 54,845,022,310 | 93,937,057,000 | 134,370,378,000 | 211,992,599,000 | 303,847,514,000 |
| 교육부예산 | 5,062,431,258  | 12,495,810,267 | 19,172,027,920 | 27,982,002,000  | 41,627,519,000  | 50,424,128,000  |
| 비율    | 22.3           | 22.8           | 20.4           | 20.8            | 19.6            | 16.6            |

### 3) 교육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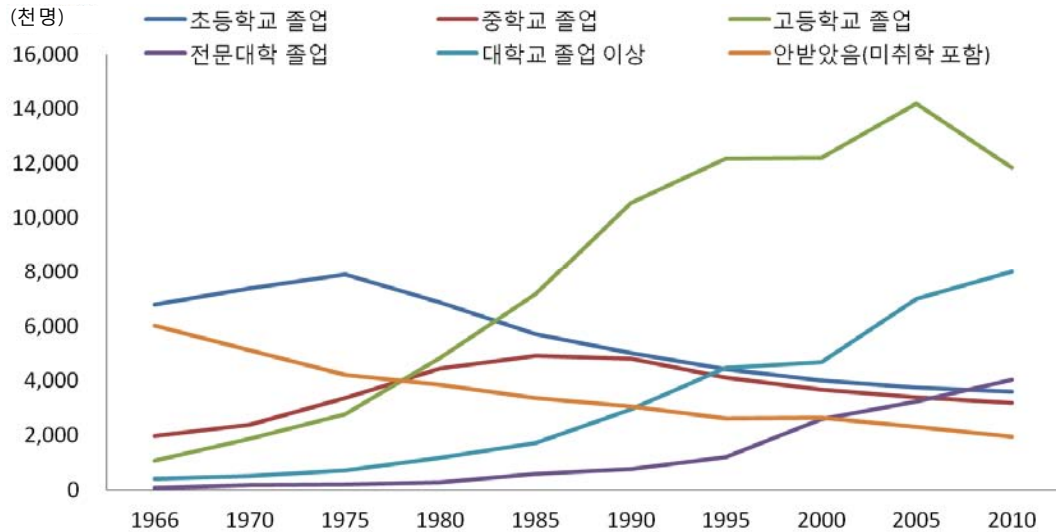
#### (1) 교육수준별 인구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교육수준별 인구 비율은 국가의 교육발전 결과 및 인적자원 확보 상황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나타내며, 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개인적인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1980년까지 한국의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이다. 또한 1985년까지 초등학교 졸업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학이었다. 이것은 광복 이전의 낮은 교육투자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복 후의 교육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초등학교 졸업자 비중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후 현재까지도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고등학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2005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대학교 졸업자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 교육년수는 2012년 현재 17.5년으로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깝다. 이는 미국(17.2년), 일본(16.3년)보다는 높지만, 핀란드(19.7년), 호주(19.4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교육수준별 인구(1955-201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6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함.

2) 1955년은 각학교급의 졸업자가 아닌 취학자 인구를, 미취업 인구는 국문불해독자를 의미함.

3) 1955, 1960년 전문대 졸업/대학교 졸업자 수는 전문대 진학 이상의 학력자를 의미함.

4) 1960년의 경우 수학년수 0='안 받았음', 1-5='초등학교 졸업', 6-8='중학교 졸업', 9-11='고등학교 졸업', 12년 이상='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분류함.

교육수준별 인구(1955-2010)

(단위: 명)

| 구분               | 성별 | 1955      | 1960    | 1966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
| 초등학교<br>졸업       | 계  | 2,705,480 | 11,297  | 6,806,276 | 7,389,417 | 7,902,070 | 6,868,152 | 5,713,123 | 5,014,338  | 4,439,428  | 4,023,228  | 3,770,673  | 3,611,125  |
|                  | 남자 | 1,562,783 | 7,087   | 3,158,823 | 3,223,957 | 3,290,451 | 2,773,166 | 2,248,349 | 1,931,109  | 1,646,677  | 1,475,423  | 1,346,412  | 1,257,120  |
|                  | 여자 | 1,142,697 | 4,210   | 3,647,453 | 4,165,460 | 4,611,619 | 4,094,986 | 3,464,774 | 3,083,229  | 2,792,751  | 2,547,805  | 2,424,261  | 2,354,005  |
| 중학교<br>졸업        | 계  | 618,176   | 205,928 | 1,989,468 | 2,389,699 | 3,389,251 | 4,462,132 | 4,929,234 | 4,813,372  | 4,115,658  | 3,693,314  | 3,398,711  | 3,200,932  |
|                  | 남자 | 464,097   | 148,498 | 1,286,501 | 1,393,651 | 1,752,569 | 2,177,556 | 2,238,731 | 2,134,349  | 1,798,518  | 1,620,648  | 1,486,155  | 1,402,090  |
|                  | 여자 | 154,079   | 57,430  | 702,967   | 996,048   | 1,636,682 | 2,284,576 | 2,690,503 | 2,679,023  | 2,317,140  | 2,072,666  | 1,912,556  | 1,798,842  |
| 고등학교<br>졸업       | 계  | 293,546   | 79,881  | 1,086,941 | 1,892,683 | 2,776,425 | 4,836,704 | 7,198,759 | 10,572,358 | 12,195,528 | 12,210,058 | 14,195,267 | 11,844,645 |
|                  | 남자 | 238,484   | 64,724  | 743,067   | 1,287,597 | 1,704,294 | 2,879,417 | 4,003,784 | 5,633,162  | 6,236,709  | 6,057,392  | 7,043,370  | 5,775,867  |
|                  | 여자 | 55,062    | 15,157  | 343,874   | 605,086   | 1,072,131 | 1,957,287 | 3,194,975 | 4,939,196  | 5,958,819  | 6,152,666  | 7,151,897  | 6,068,778  |
| 전문대학<br>졸업       | 계  | 103,200   | 103,660 | 88,117    | 188,390   | 198,444   | 279,536   | 596,593   | 785,865    | 1,205,783  | 2,613,695  | 3,243,879  | 4,043,632  |
|                  | 남자 |           |         | 71,790    | 138,978   | 140,138   | 193,810   | 391,372   | 453,586    | 638,913    | 1,339,726  | 1,605,118  | 1,979,318  |
|                  | 여자 |           |         | 16,327    | 49,412    | 58,306    | 85,726    | 205,221   | 332,279    | 566,870    | 1,273,969  | 1,638,761  | 2,064,314  |
| 대학교<br>졸업 이상     | 계  | 90,090    | 53,230  | 404,256   | 514,631   | 722,557   | 1,186,416 | 1,729,298 | 2,965,081  | 4,483,168  | 4,692,255  | 7,003,323  | 8,019,181  |
|                  | 남자 |           |         | 339,459   | 417,822   | 556,219   | 879,117   | 1,233,370 | 2,027,188  | 2,895,983  | 2,924,078  | 4,106,508  | 4,570,899  |
|                  | 여자 |           |         | 64,797    | 96,809    | 166,338   | 307,299   | 495,928   | 937,893    | 1,587,185  | 1,768,177  | 2,896,815  | 3,448,282  |
| 안받았음<br>(미취학 포함) | 계  | 3,190,893 | 103,660 | 6,032,978 | 5,125,126 | 4,215,269 | 3,870,852 | 3,370,374 | 3,066,267  | 2,627,896  | 2,649,352  | 2,325,209  | 1,971,837  |
|                  | 남자 | 857,917   | 53,230  | 2,173,518 | 1,795,916 | 1,437,896 | 1,271,403 | 1,010,795 | 885,137    | 714,135    | 727,796    | 628,812    | 503,964    |
|                  | 여자 | 2,332,976 | 50,430  | 3,859,460 | 3,329,210 | 2,777,373 | 2,599,449 | 2,359,579 | 2,181,130  | 1,913,761  | 1,921,556  | 1,696,397  | 1,467,873  |